

국힘도 ‘세종시대’ 가세… ‘충청 표심’ 얻기 경쟁 가열

민주·국힘, 국회 세종 이전 공감대…대통령실 이전은 의견 분분
민주, 시기에만 이전…국힘 洪·安 “청와대 복귀”, 韓 “일단 용산”

여야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 캐스팅보터 충청권을 잡기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인 만큼, 중도층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충청권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비대위 회의에서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환원추진위원회를 꾸려 시민을 위한 열린광장으로 조성하고, 세종에 제2의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집무실을 아예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민주당 후보들의 구상과는 견해차가 있다.

이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홍준표·안철수 후보는 청와대 복귀를 주장한다. 홍 후보는 지난 15일 비전발표회에서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광주일보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산신문협화와 인터뷰를 통해 “이날 개헌을 거쳐 상·하원제를 도입해 상원은 여의도에, 하원은 세종으로 옮기겠다”면서 “세종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광주, 부산, 대구에도 제2, 제3의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 8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일단은 용산에서 시작하되, 지금 청와대의 규모를 좀 줄여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경호를 잘하게 만들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지금은 일이 먼저”라며 일단 용산에

잔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는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나경원 후보는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건 명백한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김경수 후보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대통령실까지 세종으로 이전해 행정수도도 마무리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 구조를 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도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을 세종시 및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들 후보들은 이전 시기를 두고는 미묘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토론회에서 “용산을 우선 쓰면서 신속히 청와대를 보수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며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완공하면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용산→청와대→세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이전’ 구상을 밝힌 셈이다.

반면,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즉각 다른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21일 광주선관위가 선거기간동안 사이버선거범죄 예방단속을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지원단은 투표일 전날인 6월 3일까지 운영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재명 50% 첫 돌파…김문수 12.2%·한동훈 8.5%

리얼미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50.2%로 처음으로 50% 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는 전주보다 1.4%포인트(p) 오른 50.2%를 기록했다.

그간 범보수 진영 선호도 1위를 기록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2.2%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1.3%p 상승한 수치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8.5%(전주 대비 2.3%p ↑)를,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7.5%(2.3%p ↑)를 얻었다.

이외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4.0%,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3.7%(1.3%p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5%(0.5%p ↑), 민주당 김동연 후보 2.0%(0.8%p ↑), 민주당 김경수 후보 1.8%(0.5%p ↑) 등이었다.

리얼미터는 “범여권 주자군에서는 이번 주 제외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지 표심을 타 여권 후보들이 고루 흡수하면서 전주 대비 대부분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등 주요 여권 주자들은 모두 한 자릿수에서 10% 초반대에 머물며 후보군의 분산과 확장성 부재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구(舊)여권을 중심으로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조사에서 8.6%를 기록한 바 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국민의힘 경선 조사에서 한 대행을 빼고 조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 결과 예측을 위해 당 경선 물대로 이번 주에는 한 대행을 조사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3.4%였고, 김동연 후보 17.3%, 김경수 후보 5.7%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 및 무당층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2.9%의 지지도를 얻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8.6%였고, 한동훈 후보 14.9%, 홍준표 후보 12.4%, 안철수 후보 9.6%, 나경원 후보 6.4%, 유정복 후보 2.3%, 양향자 후보 2.2%, 이철우 후보 1.1%였다. 국민의힘 경선들과 같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집계한 후보 적합도는 김 후보

가 27.8%, 한 후보 19.8%, 홍 후보 17.9%였다. 이어 나 후보 10.2%, 안 후보 7.7%였다.

이번 주부터 리얼미터가 새로 시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와의 3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모두 54%대의 지지율을 얻으며 앞섰다.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국민의힘 주자로는 김문수 후보가 23.6%, 홍준표 후보 20.5%, 한동훈 후보 16.2%를 얻었다. 이준석 후보는 한 후보가 나왔을 때 5.4%, 홍 후보 때 6.0%, 김 후보 때 6.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국힘 주자들, 한덕수 ‘고심’에 견제구

국민의힘은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고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는 국민의힘 경선 결과 뿐 아니라 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건로 봐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대선판 전체에서도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홍준표 후보는 채널A 유튜브 인터뷰에서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인데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건가”라며 “(선거 과정이) 흥미로써 테니까 그건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극히 비상식”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출마 선언도 안 한 분의 입장을 자주 얘기해서 경선의 주목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도 같은 방송에서 “대선 출마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에 전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지방정가 라운지

박필순 시의원 “광주서 7년간 싱크홀 154건”

최근 7년간 광주도심에서 154건의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해 2건의 인적피해와 11건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필순(광산구 3선거구) 광주시의원이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4건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가 6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31건), 서구(27건), 북구(22건), 남구(13건) 순이다.

남광주역(9건)과 금남로4가역(4건) 등 도시철도역 인근과 광산구 월곡동(10건), 비아동(9건), 화정동(9건) 등 구시가지 지역에 싱크홀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르면, 관리 지자체는 싱크홀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한 건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위험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전 대응과 중점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는 노후 하수관과 지하 도시철도 건설이 겹치는 등 지반침하에 취약한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취약지점을 집중 관리하고, 공개된 안전지도를 활용해 시민들과 함께 대응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광주시는 “중점관리대상 지정·고시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 있으며 광주시의 경우 구청장이 지정·고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